

연중 제23주일 복음 나누기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셨다.”(마르 7,31-37)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르 7,31-37
-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대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32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청하였다.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34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35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36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37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줍니다. 복음의 서두에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대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여정을 그 당시 사람들처럼 눈으로 쫓아봅니다(31절). 여러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데려옵니다(32절).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되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나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나를 이곳에 데려온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 말해주었으니 더듬거리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가운데 예수님과 군중이 보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군중의 시선이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구경거리가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제 내 눈에 이분만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가락을 나의 두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발라 나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33절). 그제 손을 얹어 주십사하고 청하였는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도 더듬거리는 나의 못난 두 귀와 혀에 손을 대어주시니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십니다. 불편한 몸으로 인한 내 마음의 상처를 해아려 주신걸까요?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에파타!”.... “열려라.”(34절)

귀와 입이 열림과 동시에 닫혀 진 세상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파스카의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닫혀 진 마음의 상처까지도 말끔히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의 시선보다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의 사정을 더 중요시해주셨습니다. 군중들에게 멋진 기적을 보여주기 보다는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가 이해하기 쉽게 귀와 혀에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의 육적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모든 이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주님’이신 분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아주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서있는 나이지만 주님께서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으로 나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섰을 때, 내 부족한 부분을 내어 보일 때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부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체험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중재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 ❖ 나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치유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